

- 주요 뉴스: 주요국 통화정책 금리인하 기대 높지만 고물가에 따른 자연 가능성 정계할 필요
 - ECB 주요 인사, 6월 금리인하 가능. 일부는 제약적 수준의 금리 유지 의견을 제시
 - 중국, G7의 과잉생산 비난에 반박. 반도체산업 육성 위한 대규모 펀드 조성
 - 일본은행 총재, 2%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주의 깊게 추진할 방침
- 국제금융시장: 유럽은 전반적으로 거래 감소한 가운데 6월 금리인하 기대 등이 영향
 - 주가: 미국 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
유로 Stoxx600지수는 ECB 인사들의 비둘기파적 발언 등으로 0.3%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이번 주 4월 근원 PCE 물가 등 지표 발표 앞두고 소폭 하락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모두 0.1% 상승
 - 금리: 미국 채권시장은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
독일은 ECB의 6월 금리인하 전망 등으로 4bp 하락

※ 뉴욕 1M NDF 증가 1359.3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61.5원, 0.2% 하락). 한국 CDS 하락

		5/27일	5/24일	전일대비			5/27일	5/24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휴장	5,304.7	-	국제 금리 10y	미국	휴장	5,304.7	-
	유럽	522.21	520.57	+0.32%		독일	2.55%	2.58%	-4bp
	중국	3,124.0	3,088.9	+1.14%		영국	휴장	4.26%	-
	일본	38,900	38,646	+0.66%	CDS 5y	한국	34bp	35bp	-1bp
	한국	2,723.0	2,687.6	+1.32%		중국	60bp	61bp	-1bp
	달러지수	104.58	104.72	-0.13%	위험 지표	EMBI+	-	356	-
환율	유로화	1.0859	1.0847	+0.11%		VIX	16.41	16.39	+0.12%
	엔화	156.88	156.99	+0.07%		WTI유	휴장	68.74	-
	위안화	7.2445	7.2436	-0.01%	원자재	구리	휴장	431.9	-
	원화	1,363.8	1,369.5	+0.42%		금	1,827.7	1,817.6	+0.56%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주요국 통화정책, 금리인하 기대 높지만 고물가에 따른 지연 가능성 경계할 필요

- 최근 시장에서는 연준의 9월 금리인하를 예상하고 있으며, ECB의 경우 주요 인사들이 6월 금리인하가 가능하다고 발언. 이에 더해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국은 연내 금리인하가 시작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
- 그러나 다수의 국가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예상보다 높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 특히 미국의 경우 경제성장이 예상보다 양호하다는 점도 금리인하를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 Goldman Sachs는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최근 연준의 금리인하 예상 시기를 7월에서 9월로 조정
- 특히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이전에 비해 둔화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물가 수준은 중앙은행의 목표를 상회. 또한 앞으로도 다수의 국가에서 고령화, 세계화의 후퇴, 국방비 증가, 녹색산업 전환, 정치적 포퓰리즘에 따른 예산 증가 등이 인플레이션 및 금리를 높이는 여건을 조성할 것으로 예상
- 역사적으로도 중앙은행들은 경제 및 금리 전망, 선제적 안내 등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오류를 범하여 비난에 직면. 연초 이후 계속해서 연준의 금리인하 예상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Bloomberg Economics)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ECB 주요 인사, 6월 금리인하 가능. 일부는 제약적 수준의 금리 유지 의견을 제시

- 핀란드 중앙은행 총재인 렌 위원은 인플레이션(연율)이 목표 2%에 부합하고 있으며, 이에 조만간 금리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발언. 다만 이는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한다고 첨언. 프랑스 중앙은행의 드 갈로 총재는 7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
- 한편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금리인하 여지를 확보했지만, 실제 시행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 다만 금년에는 제약적인 수준에서 금리를 유지해야 하며, 인플레이션 역시 더 많은 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

■ 독일 5월 Ifo 경기기대지수, 전월비 상승. 하반기 경기회복 가능성 시사

- 독일의 5월 Ifo 경기기대지수는 90.4를 기록하여 전월(89.7) 대비 상승. 시장에서는 독일 경기가 아직 완전한 회복세에 접어들지는 않았지만,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다만 향후 경기회복은 오랜 시간에 걸쳐 평탄하지 않은 과정을 밟게 될 것으로 예상(Bloomberg Economics)

■ 중국, G7의 과잉생산 비난에 반박. 반도체산업 육성 위한 대규모 펀드 조성

- 외교부는 G7이 중국의 과잉생산이 세계무역을 위협한다며 비난했는데 이는 과장된 평가이며, 성장을 가로막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 한편 중국은 재정부 주도로 3440억위안 규모라는 사상 최대 반도체 투자기금을 조성. 이러한 움직임은 중국의 기술독립과 인재육성을 위한 의지로 평가

■ 중국 4월 공업부문 기업이익, 전년동월비 증가. 수출 호조 등에 기인

- 4월 공업부문 기업의 이익은 전년동월비 4% 증가하여 3월의 감소에서 전환. 이번 결과는 수출 증가와 정부의 노후 장비 교체 노력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 시장에서는 중국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가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 민간경제까지 전반적으로 살아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Bloomberg Economics)

■ 일본은행 총재, 2%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주의 깊게 추진할 방침

- 우에다 총재는 일부 어려움이 있겠지만 2%의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을 위해 주의 깊게 통화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언. 인플레이션을 0% 수준에서 높이는 것은 성공했으나 향후에는 이를 2% 수준에서 고정해야 한다고 강조
- 한편 일본은행의 우치다 신이치 부총재는 장기간 지속되었던 디플레이션 극복에 근접했다고 언급.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 노동시장이 구조적으로 바뀌기 시작하여 임금이 계속해서 상승할 것으로 전망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5/28 현지시각 기준)

- 연준 보우먼 이사,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및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발언
- 미국 3월 FHFA 주택가격지수 및 S&P/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 미국 5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 5월 달러스 연은 제조업 경기지수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의 자유주의 수호, 규칙기반 국제질서보다 우선될 필요 - Financial Times

(America breaks global rules as it defends the free world)

- 서방 외교정책에서 규칙기반 국제질서는 오랫동안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 그러나 이러한 개념은 실제적인 측면에서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 일례로 조국을 지키는 것이 규칙기반 국제질서보다 우선
- 최근 미국은 중국산 수입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 이러한 여건에서 규칙기반 국제질서를 강조할 경우 당초 미국이 강조하기 원하는 동맹국 중심 자유주의 수호 명분이 약화될 우려. 이에 상황에 따라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고 의도가 정확히 전달될 수 있는 자유주의 수호 주장이 중요

■ ECB·영란은행, 경기선행지표 신뢰하여 금리인하 단행 가능 - Financial Times

(No more excuses — central bankers need to get back ahead of the curve)

- 최근 유럽 내 소비자물가와 임금이 정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디스인플레이션의 마지막 단계에 대한 우려가 제기. 이는 구체적으로 ECB와 영란은행이 인플레이션 정상화 직전에 제약적 통화정책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기준금리를 중립금리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
- 하지만 금리인하가 지연될 경우, 이미 둔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이 더욱 악화될 소지. 최근의 임금 동향과 기업 설문조사 등의 선행 지표, 기업의 이익 마진 하락, 생산성 회복 가능성 등을 감안할 경우 전반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 이에 중앙은행은 금리인하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

■ 중국의 무역정책, 미국 견제를 위한 한국·일본과의 관계 강화 노력은 한계에 봉착 - WSJ

(China Courts U.S.'s Top Asian Allies on Trade, but Will It Succeed?)

- 최근 미국의 관세 강화 조치에 대응하여, 중국은 한일중 정상회담을 통해 3국의 무역 관계를 강화하려고 노력. 중국의 주요 관심사는 일본과 한국의 對중국 수출 제한을 제거하는 것이며, 실제로 3국은 FTA 협상 재개 등을 약속
- 그러나 反보호무역주의와 관련하여 구체적이면서 새로운 계획에는 합의하지 못한 상황. 또한 군사 및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이견.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 수준이 진전되었으나 중국이 두 국가와의 더욱 강력한 무역 관계를 추구하도록 설득하는 것은 계속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분석

■ 중국의 대규모 부동산 부양책, 낮은 임대수익률 등으로 효과는 제한적 - 블룸버그

(China's Housing Rescue Has a Poor Track Record in Pilot Cities)

- 중국은 지방정부의 미분양 주택 구매 지원 등 대규모 부동산 부양책을 시행. 이와 유사한 정책이 이미 '23년 8개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었으나 그 효과는 기대보다 미흡. 이에 부동산 침체 우려가 심해지는 상황에서, 효과가 미진한 부동산 부양책의 전국적 시행은 관련 위험성을 더욱 가중시킬 소지
- 실제로 푸저우, 텐진 등 주요 시범 도시의 정부는 인민은행 지원에 따라 매수한 주택을 임대수익이 적은 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수익률 하락 문제에 직면. 부동산 유지 관리비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더욱 심각. 또한 부양책 시행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이 더욱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

■ 외환시장 투자자, 연준의 금리인하 전망 등으로 달러화 약세 포지션 확대 - 블룸버그

(Dollar Bulls Retreat as US Economic Print Cools, CFTC Data Sh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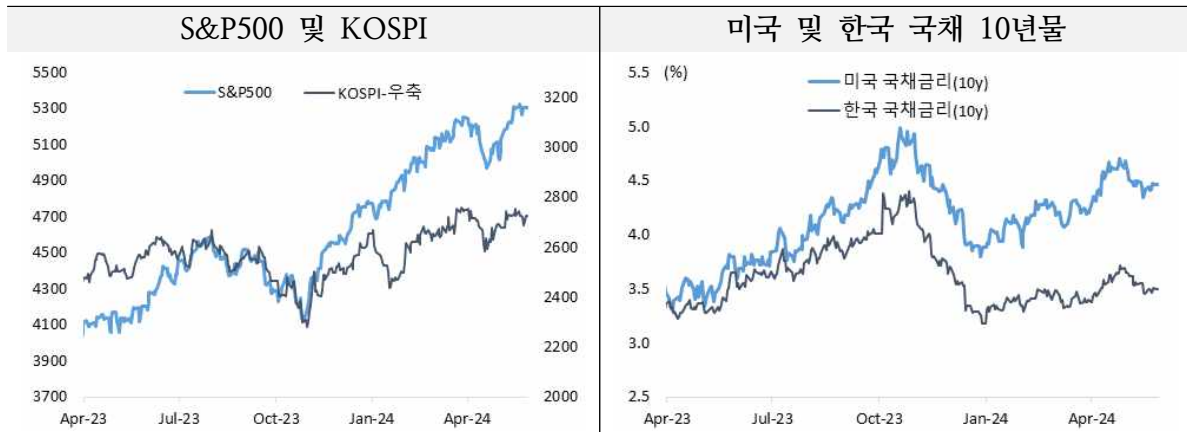
■ 중국의 성장 동력, 부동산에서 벗어나 교육의료 산업 등에 집중할 필요 - Financial Times

(China needs to look beyond real estate for sources of growth)

■ OPEC 회원국, 감산 합의 불구하고 과잉 생산으로 유가 하락에 일조 - The Economist

(OPEC heavyweights are cheating on their targ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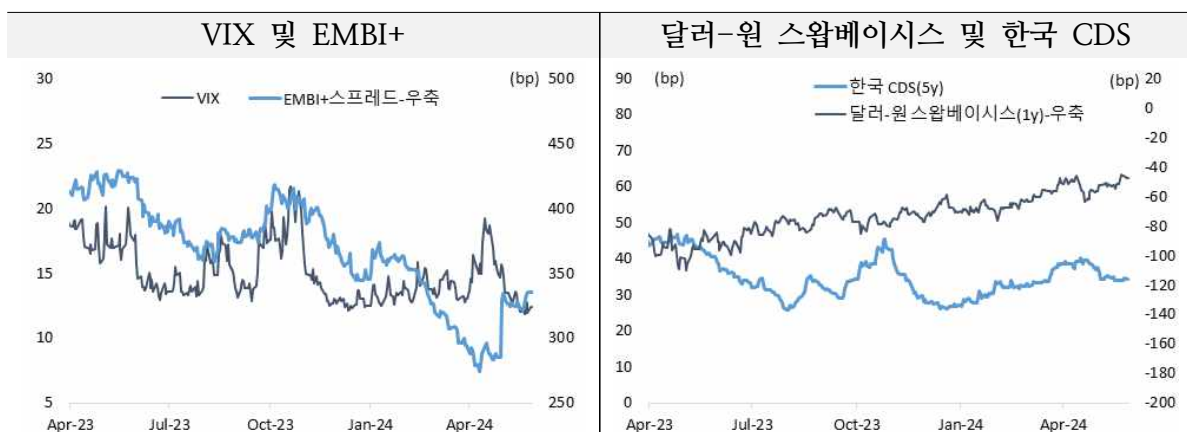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